

황해남로와 ‘동아지중해’

- 원·명교체기 제주도의 해양사적 위상 - * **

박 영 철***

- I. 문제
- II. 牧胡의 난과 원·명 교체
- III. 與國 탐라의 해양사적 위상
- IV. 與國에서 屬國으로
- V. 결어

국문초록

본고는 원명교체기의 제주도, 특히 牧胡의 난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해양사적 위치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牧胡의 난은 요컨대 고려정부가 제주도를 원의 지배에서 탈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것은 공민왕의 고려정부가 수백 척의 배와 수만 명의 병력을 동원한 일대 전쟁으로서 이것은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책의 일환으로 동녕부 공격과 같은 성격에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군산대학교 연구교수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고는 2018년 6월 9일 탐라문화연구원과 송원사학회 공동주최로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된 <중세동아시아의 해양과 교류> 세미나에서 발표된 필자의 “원·명 교체기의 제주도와 동아시아 문명”을 수정가필한 것이다. 당시 토론에서 필자의 발표를 경청해 준 여러분들 특히 전영준 연구원장과 윤은숙 교수께 사의를 표한다. 전영준 연구원장께는 가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후의도 입었다. 또한 필자의 원고를 진지하게 심사하고 평가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사의를 표한다.

*** 군산대학교 사학과. ibherr@kunsan.ac.kr

속한다. 그런데 고려의 영토회복운동이 한편으로는 몽고제국의 유산의 상속 분쟁으로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고려 역시 역사적 정당성의 근거가 없지는 않다.

한편, 제주도의 역사는 이러한 점에서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명교체기의 동아시아 해역에서는 원대와 비교해 제주도의 역사적 위상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본고에서는 해양사적 입장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밝혀보려고 한 것이다. 그 역사적 의미란 요약하면 원명제국의 교체 이후 해양의 폐쇄와 조공질서의 강화라는 것인데, 이러한 정치-해양사적 환경에서는 ‘동아지중해’의 개념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싶다.

주제어: 목호의 난, 여국, 탐라낙토, 황해남로, 조공질서

I. 머리말

필자는 고려도경에서 서공이 고려를 海國이라 기술한 것은 단순히 해외의 동이국가가 아니라 해양에 밀접하고 이에 근거한 해양의 국가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나아가서 고려도경에 기록된 군산도의 승산행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추구한 바 있다.¹⁾ 필자의 연구의 목적의 하나는 군산도가 고려시대를 통해서 황해남로(즉 황해남부사단항로)의 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한 것을 밝히려는 데 있었지만, 황해남로를 확대한 보충적 사례로서 1373년(공민왕 22) 大護軍 金甲雨가 명태조에 탐라말 50필을 진현하기 위해 제주를 출발해 중국 강남의 명주에 도착한 사례에 주목한 바 있다. 당시 김갑우는 8월 24일 제주를 출발해서 중국 절강 明州에 17일 만인 9월 10일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했지만,²⁾ 황해남부 동중국해의 풍파를 넘는 3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수행된 고된 사

1) 박영철, 『군산과 동아시아—황해남로 흥망사—』, 민속원, 2017.

2) 박영철, 위의 책, 189쪽, <고려말기 황해남로 왕래표> 참조.

행의 임무수행에도 불구하고 김갑우는 귀국 후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있다.³⁾ 김갑우사건은 당시 원제국의 몰락과 신흥 명제국의 대두라는 거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몽고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아온 제주도를 놓고 전개된 고려와 명과의 긴장된 외교관계 속에서 명제국에 공물로 진헌하는 조공마의 품질과 개인의 사육이 뒤얽혀 벌어지게 된 개인적 비극이면서 해양사적으로는 확대된 황해남로를 이용한 사례로서 주목된다. 김갑우가 갔던 사행로는 제주도와 명주를 연결하는 드물게 보는 루트이거나 그 해로는 노걸대에 나오는 고려상인들이 이용한 황해북로를 이용해 해로로 가서 육로로 돌아오는 길을 멀리 한반도의 최남단인 남쪽까지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명초만 하더라도 황해해로를 이용한 사행이 왕래되었음은 필자가 밝힌 바 있지만, 김갑우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주도에서 명주까지도 말을 실은 배가 왕래할 정도로 바다는 열려 있었다. 고려도경에서 서국은 고려를 海國이라고 말한 바 있었지만 고려시대의 바다는 조선시대에 비해 개방적이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해양적 개방성은 특히 고려를 굴복시킨 몽고제국의 쿠빌라이가 남송과 일본을 원정하기에 이르러 제주도의 전략적 요충을 간파하면서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여몽연합군이 삼별초 난을 진압한 이후 몽고의 직할령이 되고 그 후 일본원정이 실패하면서는 몽고제국의 국영목장이 설치되는 경제적 중심지로 변모하게 된다. 이리하여 제주도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게 되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제주도를 樂土라 인식하게 할 정도로⁴⁾ 몽고족과 제주토착민의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

3) 김갑우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고창석, 『獻馬使臣 金甲雨의 斷罪事件』, 『제주도사연구』 3, 1994. 또 상세한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구범진, 『이문역주』, 세창출판사, 2012, 131-142쪽, 金甲雨盜買馬名訟, 참조(이 자문의 제명은 내용상 金甲雨盜賣馬罪名訟가 옳을 것이다.) 김갑우사건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김갑우 개인의 비리보다는 원명교체기의 긴장관계에 있는 고려를 견제하여 조공질서를 확립하려는 홍무제의 심리적 전술에 있을 것이다.

4) 『고려사』 권43, 공민왕세가 21년(1372) 9월 18일壬戌. 耽羅를 樂土라고 한 말은 홍무제가 고려사신 장자온 등에게 한 말 중에 나오는 말이다.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이 탐라 목자들은 元朝의 달달인으로 본래 牧養을 업으로 삼고 별로 농사를 지을 줄을 모른다. 또한 여러 해 동안 탐라에서 나고 자라 耽羅樂土에서 자라 생활해온 사람들이다(我尋思, 這耽羅的牧子, 係元朝達達人, 本是牧養爲

켰던 것 같다. 원제국 말기에 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제(혜종)가 제주도에 자신의 피난처를 위한 궁전을 건설하려고 시도했었던 사실은 제주도가 樂土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유력한 증거로 보인다.⁵⁾

제주도는 ‘동아지중해’라고 비유되기도 하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최대의 섬이면서 그 중간에 있는 동아시아 해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지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해양사적 중요성은 많이 이야기되어 온 것 같지 않다.⁶⁾ 가령 몽고제국 말기 牧胡의 난(1356~1374)은 고려정부의 영토수복운동으로서 이해되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한편으로는 몽고제국의 유산의 상속분쟁으로서 평가되기도 한다.⁷⁾ 양자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는 진술이겠지만, 제주도 고유의 역사적 입장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 제주도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자체가 가진 자료적 한계로 인한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제주도 고유의 해양사적 가치가 풍부하게 개발된 몽고제국시기의 耽羅樂土의 이미지 및 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元史에 보이는 與國의 역사적 의미를 穿鑿하려고 하였다. 고려 후기 즉 몽고제국 시대의 제주도는 몽고제국의 물질문명과 목축업이 잘 경영된 국제도시로 그려지기도 하며, 이렇게 된 환경 중의 하나로 몽고제국의 수도 大都와 제주도가 황해해로를 통해 직결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⁸⁾ 앞서 말한 김갑우도 제주도와 명주를 왕래하였지만, 제주도 궁전 조성을 고려 궁전에 알린 순제의 사신 高大悲도 황해남로를 통해

業, 別不會做莊家. 有又兼積年, 生長耽羅樂土過活的人有).

- 5) 岡田英弘, 「元の惠宗と濟州島」,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藤原書店, 2010 [1958] 참조.
- 6) 탐라의 지리적 위치를 증시한 연구로 배숙희, 「元代 慶元지역과 南方航路-탐라 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 『중국학보』 65, 2012; 이강한, 「1293~1303년 고려 서해안 ‘元 水驛’의 치폐와 그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33, 2012; ____,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2017 등이 있다.
- 7)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정동훈, 「몽골제국의 붕괴와 고려-명의 유산 상속분쟁」, 『역사비평』, 2017, 121쪽; 정동훈,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제주 문제」,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 참조.
- 8) 윤은숙, 「元末 토곤 테무르 카안의 耽羅宮殿」, 『탐라문화』, 53, 2016.

왕래하였고, 명을 건국한 주원장도 황해남로를 통해 고려에게 사실을 알렸던 것이다. 제주도의 토착세력과 고려왕조는 원말 몽고제국의 몰락기에 이르러 대립하면서 제주의 토착세력인 屋主가 원 정부와 연락을 취하기도 하는데 그 루트 역시 해로였을 것이다. 이하 원명교체기의 牧胡의 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II. 牧胡의 난과 원·명 교체

여·명 사이에서 제주도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명의 홍무제가 황제즉위(1368) 후 같은 해 11월 俟斯를 고려에 파견해 자신의 즉위 사실을 알린 직후였다.⁹⁾ 1370년(공민왕 19) 7월 三司左使 姜師贊을 명에 보내어 원에서 내린 金印을 바치면서 한편으로 冊命과 璽書를 보내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제주도에 대해 고려 개국 이래 오랜 영역임을 주장한 것이 그 시초이다. 공민왕이 이때 홍무제에게 보낸 탐라계품표(耽羅計稟表 탐라에 대한 일을 아뢰는 표문)는 탐라에 대한 고려의 전통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탐라라는 섬은 바로 고려의 사람들이 개국한 이래로 州를 설치하고 牧使를 두었습니다. 근대에 元朝(燕)와 통교를 한 뒤부터, 元朝(前朝)의 목마장이 그 섬 안에 있었으나 단지 풍부한 물과 풀을 이용하였을 뿐이며, 영토는 예전처럼 고려에 있었습니다.(a) 얼마 전에는 奇氏 형제가 반란을 도모하다 처형당하였습니다.(b) 그들의 공술서에 (기씨 형제와) 탐라의 達達牧子 忽忽達思(쿠쿠다스)가 연관되었으므로 사람을 파견하여 추궁하게 하였는데, 재상 尹時遇 등이 모두 그들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그 뒤에 전 侍中 尹桓의 家奴인 金長老가 앞의 賊徒들과 한편이

9) 공민왕 17년(홍무 1년, 1368) 정월 주원장이 남경에서 황제를 칭하며 국호를 ‘大明’으로 공포한 후, 명의 북벌군이 大都(北京)로 육박하자 8월에 원 順帝는 황궁을 버리고 上都(開平府)로 피난하였다. 이로써 약 백 년에 걸친 몽골의 중국지배는 끝나고, 이후 이 만리장성 이북의 ‘북원’ 왕조와 신흥 명 사이에서 고려는 갈등하게 된다.

되어 본국을 해치려고 모의하다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c) 섬이 비록 손바닥만 하다고는 하나 인민들이 자주 소란을 일으켰으니, 병의 뿌리가 남아있는 한 의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일월과 같은 밝음으로 한 곳에 있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판별하시어, 이전 元朝의 太僕寺·宣徽院·中政院·資政院이 방목하여 기르던 말과 노새(d) 등을, 濟州의 관리들이 원래 문서를 대조하여 토착민들(土人)에게 맡겨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철마다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달달목자들은 또한 본국에서 어루만져 양민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신다면,(e) 성조의 馬政 관리에 어찌 조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국 백성의 생업도 역시 조금 안정 될 것입니다.¹⁰⁾”

이 탐라계품표의 핵심은 원의 목마와 목마를 길러온 牧胡(達達牧子) 및 이들이 거주하는 탐라라는 섬에 대한 지배의 문제였다. 이른바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책이 잘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래 고려의 영토라는 것(a)을 주장한 다음, 이제 멸망한 원과의 인연이 끊어져 세력이 약해진 제주도의 목호세력을 밀어내고 목호와 말에 대한 완전한 장악을 하려는 것(e)이 탐라계품표에 나온 공민왕의 의도이다.

명과의 국교 수립 직후에 고려가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탐라문제를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중국대륙의 새로운 주인이 된 명이 탐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일반적이고,¹¹⁾ 그래서 이를 원제국의 유산상속분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¹²⁾ 그런데 요동 등 북방에 관해서는 원제국의 유

10) 『고려사』 권42, 공민왕세가, 19년(1370) 7월18 甲辰. 耽羅計稟表曰, “居高聽卑, 從欲是急, 以小事大, 稟命宜先. 茲用空陳, 輒增隕越. 切以耽羅之島, 卽是高麗之人, 開國以來, 置州爲牧. 自近代通燕之後, 有前朝牧馬其中, 但資水草之饒. 其在封疆如舊. 乃者奇氏兄弟, 謀亂伏誅, 僞連耽羅達達牧子忽忽達思, 差人究問, 宰相尹時遇等, 盡爲所殺. 其後, 前侍中尹桓家奴金長老, 黨附前賊, 謀害本國, 俱各服罪. 島嶼雖云最爾, 人民屢至騷然, 病根苟存, 醫術難效. 伏望 體容光之日月, 辨同器之薰蕕, 將前朝太僕寺·宣徽院·中政院·資政院, 所放馬匹騾子等, 許令濟州官吏, 照依元籍, 責付土人牧養, 時節進獻. 其達達牧子等, 亦令本國, 撫爲良民, 則於聖朝馬政之官, 豈無小補而小國民生之業, 亦將稍安. 區區之情, 焉敢緘默.”

11) 김일우, 앞의 책, 2000, 368쪽.

12) 정동훈, 앞의 글.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제주 문제」, 2017.

산을 상속받기 위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여지가 있겠지만, 제주도에 관해서는 북방문제와 달리 보아야 할 면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기득권과 관련된 것인데 제주도에 대해서 명은 주장할 기왕의 아무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위의 耽羅計稟表의 내용은 원의 마지막 황제 순제와 공민왕 사이에 이미 맺어졌던 약조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고, 순제와의 약조에 의해서 공민왕은 이미 원제국의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순제와의 약조는 흥무제의 즉위 전해인 1367년(至正 27·공민왕 16)의 일이었다. 그것은 다음의 기사처럼 순제의 제주도 피난과 관련해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원의 사신 高大悲가 濟州에서 와서 황제가 왕에게 하사한 채색비단 [綵帛]과 錦絹 550필을 전달하고 宰樞들에게도 또한 차등 있게 주었다. 이때에 황제가 제주로 피난하기 위하여 황실 창고[御府]의 금과 비단을 운반하였으며, 이어서 제주를 고려에 귀속시킨다는 詔書를 내렸다. 당시 牧胡들이 본국에서 파견한 牧使와 萬戶를 여러 차례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金庾가 토벌하기 시작하자 목호들이 원에 호소하여 萬戶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왕이 아뢰기를, “김유가 실제로 제주를 토벌한 것이 아니고 倭寇를 잡기 위하여 추격하다가 제주의 경내에 이르렀는데, 나무를 베고 풀을 깎던 목호들이 망명되게 의혹을 품었다가 드디어 서로 싸우게 된 것 뿐입니다. 청하건대 故事처럼 본국으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목사와 만호를 파견하여, 목호들이 기른 말을 선택하여 바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황제가 따랐다.¹³⁾

공민왕이 순제에 보낸 국서는 앞서 말한 <탐라계품표>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서, 요컨대 탐라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되, 목호들이 기르던 말은 조공으로 원에 바치겠다는 것이었다. <탐라계품표>에 서는 그 대상이 명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 목호의 난은 사실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예고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반원자주정책이 기황후 등 친원파의 핵심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계품표에 보듯이 기씨형제의 세력이 제주도의 목호와 관련

13)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6年(1367) 2월 17일 癸亥.

된 것은 그들이 공민왕의 반원정책에 심상치 않은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이 예상된다. 삼별초가 진압된 이후 몽고의 직할령이 되었던 탐라는 기황후의 財富가 관리되던 곳이기 때문에 묵호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d)“이전 元朝의 태복사·선휘원·중정원·자정원이 방목하여 기르던 말과 노새”에 보이는 資政院은 바로 奇皇后의 資政院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황후는 원에서도 상당한 재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제주도에도 상당한 재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資政院은 完者忽都皇后 즉 기황후를 위해 설치한 기관인데,¹⁴⁾ 황후의 재부가 모두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¹⁵⁾ 그 資政院의 기황후도 제주도에 목마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고려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기황후의 재력에 견주어 본다면 상당한 규모에 달했을 것이다.¹⁶⁾

원 순제의 황후로 원 제국 말기에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기황후가 모국 제주도의 국립목장에 상당한 자신의 지분을 갖고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음은 공민왕의 계품표가 증언하는 것 같다. 즉 계품표의 밑줄친 (b)“얼마 전에는 奇氏 형제가 반란을 도모하다 처형당하였습니다”에 이어지는 (c)의 재상 윤시우가 살해된다든가 전 시중 尹桓의 家奴 金長

14) 資正院(古無): 元順帝至元六年, 爲完者忽都皇后置, 後又改崇政院, 秩正二品院使六人, 同知僉院司僉院判各二人, 經歷都事管勾照磨各一人. 『續文獻通考』 권92, 職官考.

15) 『元史』 권204, 列傳91, 宦者 朴不花. “資正院者, 皇后之財賦, 悉隸焉.” 朴不花는 기황후의 동향인으로 불우한 시절에 서로 의지하다가 기씨가 황후가 된 후에는 資正院使를 맡았다. 순제의 황후로 고려와 원 조정에 걸쳐 막대한 권력을 떨치던 기황후는 至正 28년(1368)에 순제를 따라 막북으로 달아났다고 기술되어 있다. 『元史』 권114, 后妃列傳.

16) 기황후의 재산소유에 대한 사례로서는, 1359년의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조서를 내려서 찰한뇌아선위사(察罕腦兒宣慰司)의 땅을 자정원(資正院)에 속하게 하고, 유사(有司)가 차점(差占)하지 못하게 하였다. 찰한뇌아의 땅은 세조(世祖) 때에 망가대(忙哥歹) 태자의 4,000호(戶)에 예속되어 있었는데, 이제 황후 기씨(奇氏)의 요청을 따라서 자정원에 속하게 하였다.”(『元史』 卷45 本紀45 順帝8 至正19年(1359) 己亥 秋7月 庚子). 이 찰한뇌아의 4천호를 자정원에 속하게 한 것은 지정8년(1348)이래 강남 方國珍과 주원장의 난으로 인해, 資政院 소유의 集慶路 재산이 침해된 것을 보상한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이것만으로도 奇皇后의 원제국에서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李龍範, 「奇皇后의 冊立과 원대의 資政院」, 『歷史學報』 17·18, 1962, 500쪽. 참고.

老가 모의를 하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제주도에 있던 기황후와 연계된 목호세력은 두터웠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기황후의 오빠인 기씨 형제가 처형당한 것은 1356년(공민왕 5) 5월의 일로서 공민왕의 반원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궁정 쿠데타였는데, 윤시우가 제주도순문사의 자격으로 제주도에 파견되었다가 목호에게 살해당한 것은 같은 해 10월의 일이었다. 전 시중의 가노가 賊徒들과 한편이 되어 고려를 해치려고 모의한 것은 목호들이 원에 요청한 탐라만호가 제주에 와서, 공민왕이 파견한 탐라만호를 살해한 사건으로 1362년 10월의 일이었다. 공민왕은 다시 1366년(공민왕 15)에 도순문사 金庾에게 100척의 병선으로 목호를 토벌하게 하지만 실패한다. 100척의 병선으로 목호를 공격하게 했지만 실패할 정도로 목호의 세력은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대국적으로 보면 목호는 원제국의 국립목장을 관할하는 원제국과 연계된 세력으로서 목호와의 대결은 원제국과의 대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쇠망해가는 원제국이지만 제주도의 목호세력은 여전히 고려정부에게는 버거운 존재였던 것이다. 여기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는데 金庾가 실패한 다음해 1367년(공민왕 16) 3월에 뜻하지 않게 순제의 사신 高大悲가 해로로 제주에서 와서 제주를 고려에 귀속시킨다는 조서를 전한 것이다. 몽고의 직할령으로서 제주도 목호의 배후에 있던 원 조정의 이러한 조치는 목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래 제주도에 피난을 예정한 순제는 급박한 사세 때문이었는지 몽고고원으로 北奔하고 제주도에 오지는 못하고 말았고, 이렇게 되자, 공민왕은 순제와 맺었던 약조 대상을 대륙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명태조로 바꾸어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공민왕이 명에 바치기 위한 탐라말을 구하려는 조치가 목호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탐라의 목호에 대한 대규모 정벌을 하게 된다.

이 1374년의 목호의 난은 공민왕 5년 이래의 목호의 난이 누적되어 폭발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특히 공민왕의 정벌 계기가 된 직접적인 계기는 명태조의 무리한 말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¹⁷⁾ 1374년(공민

17) 고려말 홍무제의 말 요구에 대해서는 임상훈, 「明初 洪武帝의 말 강요와 麗明

왕 23)에 원이 기른 말 2~3만필 운운하면서 양마 2천필을 가려서 보내라는 흥무제의 명령에 따라, 韓邦彥이 탐라에 가서 2천필을 요구하자, 목호 石迭里必思 肖古禿不花 觀音普 등이 자신들의 세조황제가 방목해 기른 말을 명에게 바칠 수 없다고 거절하고 300필만 내주었고, 이에 명의 사신들이 2천필을 채우지 못하면 황제가 어차피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청하자, 공민왕은 최영을 원수로 하는 정벌군을 동원하게 된다. 전함이 314척에 정예병 25,605명(1척당 82명)이라는 당시 고려의 국력을 기울인 대병력이었다.¹⁸⁾ 백년 전 삼별초 진압 당시 동원되었던 여몽연합군의 병력이 160척에 12,000명(1척당 7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목호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짐작된다. 삼별초의 난은 여원연합군이 2년 걸려 제압했지만 목호의 난은 공민왕 5년부터 시작된 약 20년간에 걸친 난이었고, 고려의 총력을 기울인 정벌에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필요했다.¹⁹⁾ 그 여파도 적지 않았다. 정벌의 총지휘자인 고려의 공민왕이 시해되고 결국은 고려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목호의 난이었다.²⁰⁾

목호의 난은 어떤 의미에서 제주도를 무대로 한 고려와 몽고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원제국 말기 몽고 대륙과 단절된 목호세력과 고려와의 대결이지만, 목호는 쿠빌라이 칸 이래 백년간 제주도를 지배해 왔고 제주도는 耽羅國監討司, 탐라총관부가 설치된 이래 쿠빌라이칸 때(1276) 몽고로부터 160필의 말이 방목되었고, 원제국의 14개 국영목장의 하나가 설치된 원의 직할령으로 중시되어 온 것이다.²¹⁾ 몽골세력의 제거를 위해 제주도의 목호는 공민왕으로서는 제거하

關係, 『중국사연구』 99, 2015. 참조.

18) 『고려사』 권44, 공민왕세가, 23년 7월 기축.

19) 고창석, 「元·명교체기의 제주도-목호난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4, 1985.

20) 목호의 난을 정리한 것으로는, 고창석, 전계논문, 1985;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등 참조.

21) 윤은숙, 앞의 책, 2016, 208쪽. 탐라목장이 원의 14개 국영목장의 하나가 된 시점이 테무르 칸이 탐라의 목축사무를 위해 단사관 무치를 파견해 관리한 때(1296, 충렬왕 22)부터라고 한다.

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다. 그러나 백년간 지속되어 온 지배의 흔적은 깊었던 것 같고, 1374년의 목호토벌을 위해 동원된 314척의 배와 25,605명의 숫자가 이를 증언한다. 이 25,000여 명의 숫자는 “토벌대상인 목호의 수를 고려하여 편성된 인원”²²⁾으로 보아 좋을 것인데, 이영권이 지적하듯이 토벌대상이 되는 목호의 수에는 순수한 몽골인 목호뿐 아니라 “원의 백년 지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섞인 탐라사람들”²³⁾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열녀 정씨의 사례에 보듯이 목호와 결혼한 후 수절하여 旌表되는 경우처럼 탐라의 토착만이 목호와 결혼해 사는 것은 백 년 동안 일상사로 여겨졌던 것을 보여준다.²⁴⁾ 그렇다면 25,000여 명의 병력은 원제국의 직할령으로서 때로는 목호와 함께 고려 조정에 대항하기도 했던 탐라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된 병력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중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원나라와 관련된 성씨가 14개가 보인다. 趙, 李, 石, 肖, 姜, 鄭, 張, 宋, 周, 秦 氏의 본관은 元이며 梁, 安, 姜, 對氏의 본관은 雲南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14개 성씨는 제주에 속하는 鄭, 金, 李, 文, 安, 玄, 咸, 楊氏 8개보다 더 많다.²⁵⁾ 몽고족임을 표시하는 大元 본관은 조선시대 19세기 후반까지도 유지되었다고 한다.²⁶⁾

22)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94쪽.

23) 이영권 위의 책, 2005, 94-95쪽.

24) 이영권, 위의 책, 2005, 93-94쪽. 烈女鄭氏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職員 石那里甫介의 아내이다. 목호[哈赤]의 난에 그의 남편이 죽었는데 정씨는 젊고 아들이 없었는데 얼굴이 아름다웠다. 安撫使 군관이 강제로 장가들려 하자 정씨가 죽기로 맹세하고 칼을 들어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하므로 마침내 장가들지 못하였다. 늙도록 수절한 일이 알려져 旌閭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6, 濟州牧, 旌義縣/烈女高麗鄭氏).

2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濟州牧姓氏. 운남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명초에 운남을 평정하고 주원장의 라이벌이었던 梁王의 가족을 제주에 유배한 것에서 기원한다. 李衡(1653~1733), 이상규·오창명 역주, 『南嶺博物』, 푸른역사, 2009, 99쪽. 姓氏도 같은 내용을 전한다.

26) 濟州邑志類에는 趙·李·石·肖·姜·鄭·張·宋·周·秦 등 10개 姓 외에 康·佐씨를 확인할 수 있으며, 19세기 중반 전후의 호적자료에는 대원 본관으로 姜씨와 佐씨가 잔존했다고 한다. 한편 ‘大元’ 본관을 지속해 가는 가문의 경우에 校奴, 畚漢, 牙兵, 募軍, 果直, 群真, 席匠 등의 職役을 칭하고 있는 것으

이렇게 목호가 장악하고 있던 제주도를 실력으로 정벌하기 전에 고려는 1367년 순제와의 거래에 의해 제주도에 대한 지배를 확보하게 되지만, 그것은 故事처럼 원 조정에 목마를 조공으로 바친다는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이 점은 명에게도 계승되어 고려를 이은 조선왕조까지 조공마를 바치는 긴 파장을 미쳤다고 하는데,²⁷⁾ 여기서 명에게 어떤 근거로 조공마를 바치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명은 공민왕이 <탐라계품표>를 통해 밝힌 고려의 입장 가운데 목호를 옹기는 일에 대해서만 도덕경의 治國烹鮮을 인용하며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라고 충고하며,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왜냐하면 명은 제주도에 대해서는 아무 기득권이 없기 때문이다. 명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원의 천명을 승계했다는 명분뿐이었는데 1387년(우왕 13)의 명태조의 결정적인 聖旨에 의하면, 이 조차도 해외의 변방인 제주도에 대해 명은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이

로 보아, 그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은 쉽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일부의 가문은 '大元姜氏'에서 '晋州姜氏'로 본관을 바꾸는 등 '대원' 본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고 한다(김동진, 「조선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호적중초에 보이는 본관명 '大元' 가문의 사례분석—,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 13권 제2호, 2010, 참조).

27) 정동훈, 앞의 책,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제주 문제」, 2017.

28) 김일우, 앞의 책, 2000, 368-369쪽; 정동훈,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제주 문제」, 2017.

29) 『고려사』 권136, 우왕열전, 13년 5월. 僕長壽가 전한 명태조의 聖旨: “...나도 본래 탐라에서 말을 사들일 계획도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옳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가령 우리 이고 선박이 그곳으로 가서 이러저러한 일이 생기면 처리하지 않을 수 없이기 때문이다. 또 관례면에서도 사들일 필요가 없다. 원래 원나라에 속하던 탐라말을 나더러 처리케 하라 하더라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접수할 의사가 있었으면 먼저 사람을 보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접수하고 나서는 적어도 사람을 보내어 관리해야 할 것이며, 또 사람이 가서 관리하게 되면 이러저러한 사단이 생길 것이니 나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탐라는 당신네 나라에 가까우니 당신들이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나는 그것을 접수하지 않겠다. 그대는 돌아가서 집정재상들에게 알려라. 대강의 요지는 지성으로 나라를 지키고, 앞으로 또 와서 나를 조롱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내일 말값 문제로 요양으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나의 말을 그대는 잘 기억하였다가 다 말하여 주라.”(耽羅我也本待買些馬用來, 再尋思不中不必買了, 爲甚麼? 假如我這裏海船到那裏, 有些高高低低, 生起

문제와 관련하여 『元史』의 <탐라열전>기술 방식도 탐라에 대한 명의 생각을 엿보게 하는 것 같다.

Ⅲ. 與國 탐라의 해양사적 위상

홍무제는 즉위 2년 되는 해, 원제국의 도성에 입성하여 순제를 몽골 고원으로 몰아낸 후 곧 『元史』의 편찬을 명하고 있다.³⁰⁾ 『元史』의 편찬은 급속히 이루어져 부실하다는 평가가 당시에도 나왔다고 하지만, 홍

事來，又不得不理。論例也不必買了，耽羅原屬原朝來的馬教我區處。我却不肯，我若要取勘呵頭裏便使人去了，我若取勘了又少不的教人去管，既人去管便有高高低低，又生出事來，我決然不肯那。耽羅近恁地面則合恁管，我不肯取勘他，恁回去說與他管事的宰相每。大剛只要至誠保守你那一方，休來侮我。我明日差人往遼陽，爲馬價的事去也。我的言語，你記著說到者。) 이 성지를 전한 후 며칠 후에 명태조는 “내가 전일에 너에게 말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라면서 위에서 말한 탐라에서 말을 사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僕長壽에게 말하고 있다. “탐라에 대해서는 나도 생각해 보았는데 배들을 보내어 그곳에 일시에 정박하지 말고 탐라에서 한 20리 혹은 30리 거리를 두고 돌면서 한 채 한 채씩 순차로 정박하여 내어놓는 대로 말을 사가지고 돌아오면 되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여 보니 그도 불편할 일이다. 또 사고나 생기면 무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사러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원나라에서 방목하던 말은 당신들이 관리하라. 나는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原朝放來的馬只恁管，我不差人)… 그곳은 당신네 나라와 가깝고 그곳과 羅州가 마주 대치하고 있고 또 종래 당신들이 관할하여 왔으니 당신들이 관할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명태조의 성지를 보면, 고려측에서 명태조에게 탐라말의 관할을 먼저 제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앞서 본 공민왕의 耽羅計稟表에는 어디까지나 貢馬를 조건으로 탐라의 관할을 제안하고 있을 뿐 말의 관할을 명태조에게 제안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명태조가 이야기한 선박을 보내어 탐라말을 구입하겠다는 계획과 탐라말의 접수라는 주장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명태조가 탐라를 고려의 관할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30) 명태조가 원사의 편찬을 명한 것은 홍무2년 정월 원의 도성에 입성한 직후의 일이었는데 이는 원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원사의 편찬은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져 당시에도 두찬이라는 평가가 이미 나왔지만, 이것은 당시 몽고의 故地로 돌아간 원정권(복원)이 건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선언하고 복원정권을 천명을 부여받은 명제국에 거역하는 반란집단으로 선전하는 정치적 행위였다(이성규, 「중화제국의 팽창과 축소」, 『역사학보』 186, 2005, 127쪽).

무제가 『元史』의 편찬을 서두른 것은 망하였지만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元(北元)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해서였다. 정사의 편찬은 본래 멸망한 왕조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인데 홍무제는 거꾸로 정사를 편찬함으로써 잔존한 元의 정통성을 부인하려는 것이었다. 본래 원의 백성이었던 주원장이 정권을 장악하고 급속하게 정사를 편찬하게 하는 것은 정사의 편찬 작업이 얼마나 정치적인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급속히 편찬된 『元史』의 外夷列傳 중에 고려와 탐라의 열전이 병렬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이것은 탐라가 고려의 속국이 아니라 고려와 대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내용 또한 이를 지지하는 대목이 있다. <원사 탐라 열전>은 세조로부터 시작해서 간략히 탐라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내용을 풀이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

탐라는 고려의 輿國이다. 세조(쿠빌라이)는 至元 6년(1269) 일본원정을 위해 제주도가 요충임을 알고, 고려에게 탐라를 거점으로 일본원정 준비를 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었는데, 마침 1270년에 삼별초 군대가 탐라에 진입하여 왔다. 쿠빌라이의 몽고는 일본의 태도를 알 수 없으므로 우선 삼별초를 평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至元 9년(1272) 삼별초를 진압하기로 결정하고 평정한 후, 耽羅招討司를 세우고 1,700인을 주둔시켰다. 그런데 至元 31년(1294)에 “탐라는 朝宗 이래 그 나라를 臣屬시켜 왔고 이제 삼별초도 평정되었으니 옛처럼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고려왕(충렬왕)의 상언에 대해 “이 일은 작은 일이니 고려에 돌려주어도 좋다”라고 해서 제주도를 고려에 돌려주었고, 이때부터 제주도는 고려에 다시 예속되었다.³¹⁾

여기서 탐라가 고려의 輿國(선린국)³²⁾이라는 元史의 모두의 서술은 충렬왕이 말한 朝宗 이래 신속시켜 왔다는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31) 『元史』 권208, 外夷/耽羅.

32) 輿國은 『孟子』, 告子下(今之事君者皆曰, … 我能爲君約輿國, 戰必克), 『戰國策』齊冊上(淳于髡入說齊王曰, 楚齊之仇敵也, 魏齊之輿國也.) 등에 보이는 오래된 말이다. 集注에 “和好相與之國也” 즉 선린국이라고 설명한다.

與國이라고 한 데 대해서, 岡田英弘은 탐라의 고려화가 늦어 고려시대에는 아직 완전히 내지화되지 않았던 것이 한 원인일 것이라고 한다.³³⁾ 탐라의 고려화가 늦어 조선초기까지도 내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³⁴⁾ 與國이라고 하는 것은 충렬왕과 공민왕 등 탐라의 지배권을 주장해 온 고려의 왕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일 것이다. 여기서 탐라의 역사를 간략히 일별해 보기로 하자.

탐라는 섬나라로서 일찍이 활발하게 주변국과 교류를 펼쳐온 것 같다. 기록상 최초는 476년(문주왕 2) 때의 일로 이때 처음 탐라가 백제에 방물을 바쳤다고 한다.³⁵⁾ 498년(동성왕 20)에는 백제에서 탐라국을 조공불이행으로 정벌하려 했고, 이에 탐라에서 사신을 보내 사죄했다고 한다.³⁶⁾ 그런데 탐라가 조공한 것은 백제뿐이 아니다. 신라와의 관계는 662년에 신라에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는 기록을 시작으로,³⁷⁾ 665년에 중국의 劉仁軌가 신라와 백제 탐라 왜의 사자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태산에서 제사했다는 기록이 있고,³⁸⁾ 679년 신라가 사신을 보내 탐라국을 경략했다고 하고,³⁹⁾ 801년에는 신라에 조공했다는 기록이 보인다.⁴⁰⁾ 이렇게 탐라는 사방의 나라들에게 조공외교를 구사하고 있는 섬나라로 기록된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조공관계에서 직접적인 지배의 관계로

33) 岡田英弘, 「元の惠宗と濟州島」,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藤原書店, 2010 [1958].

34) 高橋公明,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와 고려」, 『도서문화』 20, 2002. 제주의 토착적인 星主 王子制가 조선 태종2년(1402)까지 지속된 것을 근거로 조선전기까지 탐라는 한반도의 군현제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탐라의 섬나라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35)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文周王2년夏四月, 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36)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東城王20년秋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37)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文武王2년2월.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38)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文武王5년8월. 於是, 仁軌領我使者及百濟·耽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 以會祠泰山.

39)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文武王19년2월, 發使略耽羅國.

40)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 哀莊王2년冬10월. 耽羅國遣使朝貢.

변화가 생기고 있어서 주목된다. 고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토산물을 바치고 925년(태조 8),⁴¹⁾ 이어 938년(태조 21)에는 태지를 보내 조공을 바치고 작위를 하사받고 있다.⁴²⁾ 그러다가 1011년(현종 2)에 州郡의 예에 따라서 朱記를 받았다.⁴³⁾ 1058년 송과 통교를 위해 고려가 탐라에서 벌목과 조선을 계획한 것은 탐라를 고려의 영토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⁴⁴⁾ 1105년(숙종 10)에 이르러 耽羅郡이 설치되어 고려의 군현제에 편입되는데,⁴⁵⁾ 이것이 충렬왕이 원제국의 직할령이 된 탐라에 대해 개국 이래 고려에 예속해 왔다면서 그 환속을 요구한 역사적 근거이다. 이 역사적 근거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국 정사의 기록이다. 즉 『隋書』에 “수나라 전신 1척이 탐모라국에 표착하자 백제 왕(餘昌)이 후대하여 송환했다”거나,⁴⁶⁾ 역시 『隋書』 東夷列傳 百濟條에 탐모라가 백제에 附庸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탐라가 백제의 輿國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백제 멸망 후에 탐라는 당과 신라 왜

41) 『고려사』 권1, 세가, 1, 태조 8년(825)11월 己丑, 耽羅貢方物.

42) 『高麗史節要』, 태조 21년 12월.

43) 『고려사』 권4, 현종세가, 2년 9월 을유.

44) 『고려사』 권8, 문종세가, 12년(1058), 8월 7일 乙巳. 왕이 탐라(耽羅) 및 영암(靈巖)에서 재목(材木)을 베어 큰 배를 만들어 장차 송(宋)과 통하려고 하니,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에서 아뢰기를, “국가가 거란(北朝)과 우호를 맺어 변방에 급변이 없고 백성은 삶을 즐기니, 이같이 나라를 보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난 경술년(1010)에 거란(契丹)이 문죄서(問罪書)에 이르기를, ‘동으로 여진(女眞)과 결탁하고 서로는 송과 왕래하니, 이는 무엇을 도모하는 것인가’라고 하였습니다. 또 상서(尙書) 유참(柳參)이 사신으로 갔을 때 동경유수(東京留守)가 송(南朝)과 사신을 통한 일을 물었는데, 싫어하고 시기함이 있는 듯하니 만약 이런 일이 누설되면 반드시 틈이 생길 것입니다. 또 탐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빈곤하여, 오직 해산물과 배 타는 것으로 집안을 경영하고 생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가을에는 목재를 베어 바다 건너 사찰을 새로 창건하여 피로가 이미 쌓여 있으므로, 지금 또 이 일로 거듭 괴롭히면 다른 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문물과 예악이 흥행한지 이미 오래며, 상선이 왕래가 끊이지 않아 진귀한 보물들이 날마다 들어오니, 중국(中國)에 대하여서는 실로 도움 받을 것이 없습니다.(況我國文物禮樂, 興行已久, 商舶絡繹, 珍寶日至, 其於中國, 實無所資) 만일 거란과 영원히 국교를 끊지 않으려면 송과 사신을 통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

45) 『고려사』 숙종세가, 12년 5월.

46) 『隋書』 권81, 列傳46, 東夷/百濟.

국 어느 나라와도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7세기 중반의 기벌포 동아시아대전 후 한반도에서 신라의 주권이 확립되자 탐라도 신라에 附庸하게 된다. 그 증거로서 778년 일본의 遣唐使船이 귀국 중 탐라도에 표착한 후, 일부는 억류되고 일부는 탈출하여 돌아와서 남은 억류자들을 송환받기 위해 일본조정이 다음해 遣新羅使를 신라에 파견한 예를 들 수 있다.⁴⁷⁾

송대의 표류기사에도 중국에 표류한 탐라인들을 고려에 송환했을 때, “우리 탐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송인들 역시 탐라인들을 고려의 속국으로 생각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宋의 明州에서 우리 탐라(我耽)의 표류민 用叶 등 10인을 돌려보냈다.⁴⁸⁾

宋에서 우리 표류민 子信 등 3인을 돌려보냈다. 처음에 耽羅民 20인이 배에 탔는데 표류하여 鞞國에 들어갔다가 모두 살해당하고, 단만이 3인만 탈출할 수 있어서 송에 갔다가 이때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다.⁴⁹⁾

宋에서 우리 毛羅 사람으로 배를 잃고 표류한 趙暹 등 6인을 돌려보냈다.⁵⁰⁾

이상 몇 가지 사례를 인용했지만, 송대 고려의 표류민 중에서 단일지역으로 가장 표류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탐라라는 것을 감안하면,⁵¹⁾ 탐라가 고려에 귀속한다는 것에 대한 송인의 인식은 많이 퍼져

47) 『續日本記』 권35. 岡田英弘, 앞의 책, 497쪽. 주)26 참조.

48) 『고려사』 권10, 宣宗세가, 5년(1088), 7월. 秋七月 宋明州歸我耽羅飄風人用叶等十人.

49) 『고려사』 권11, 숙종세가, 숙종 2년(1097) 6월 12일 甲午. 宋歸我漂風人子信等三人. 初, 耽羅民二十人乘舟, 漂入鞞國, 皆被殺, 唯此三人得脫, 投于宋, 至是乃還.

50) 『고려사』 권11, 숙종세가, 숙종 4년(1099) 7월 20 辛酉. 宋歸我毛羅失船人趙暹等六人.

51) 배숙희, 「宋代 동아시아 海上 표류민의 발생과 송환」, 『중국사연구』 65, 2010.

있었을 것이다. 탐라인들도 표류민 송환 때 표착지에서 그들을 어디로 송환시킬 것인가 문제될 때 탐라인은 자신들을 고려인으로 취급해줄기를 바랐을 것이다. 가령 북송의 曾鞏이 탐라인의 표류에 관한 사실을 전하는 다음 기사를 보자.

신이 明州에 부임했을 때 고려국 경계에 있는 탐라국인 崔舉 등이 바람에 배를 잃고 표류하다가 泉州 경계에 이르러 고기잡이배에 구출되어 생명을 보전했습니다...금후 고려국 등의 배가 바람으로 불편하거나 표류하여 연해 주현에 착륙한다면...⁵²⁾

曾鞏은 탐라인의 표류를 전하면서 고려국의 경계에 있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탐라의 고려에 대한 종속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려가 탐라보다 대외적으로 훨씬 알려진 국가이고 이들을 송환할 때도 탐라가 아니라 고려로 송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 표착한 탐라인의 구체적인 송환절차는 알 길이 없지만, 위의 ‘우리 탐라(我州)’와 같은 표현은 이들이 송환될 때 송으로부터 고려정부에 통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고려는 이를 통해 탐라가 고려의 속국임을 말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백제 이래 한반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고, 드디어 고려에 편입된 탐라에 대해 당시 국제사회도 고려의 부庸국(속국)이라고 생각했다면, <탐라열전>의 與國은 생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탐라는 고려의 與國이라는 元史의 서술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인가? 元史의 이러한 설명은 중국정사의 정통성을 추구하는 왕조의 정치적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혹은 원제국 시대의 제주도의 역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 문제에 단서를 주는 것으로 <원사 탐라열전>의 자료가 되었을 <耽羅志略>에 주목하고 싶다. <耽羅志略>은 순제가 제주도를 피난처

52) 曾鞏, 『元豐類稿』(四部叢刊本), 권32, “存恤外國人請著爲令/臣昨任明州日有高麗國界託羅國人崔舉等因風失船飄流至泉州界得捕魚船爰救全度 … 今後高麗等國人船因風飄不便或有飄失到沿海諸州縣 …”

로 삼고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테무르부카(帖木兒不花)를 1365년(지 원 24·공민왕 14) 제주도에 파견했을 때 동반한 浙江의 문사 李至剛이 쓴 3권의 책인데 본문은 전해지지 않고 여기에 대한 後序만이 동향인인 貝瓊의 글로 전해 온다.⁵³⁾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漢의 張騫이 흉노에 10년 억류되어 있다가 달아나 大宛에 이르고 康居, 月氏, 大夏에 이른 뒤 귀국해 보고했지만 이 책(탐라지략)만큼 상세하지 못하고, 司馬相如가 西南夷에 용병하여 승리를 거둘 때도, 그곳(邛, 笮, 冉, 駹, 斯榆)의 군장들이 (중국에) 내속하기를 청하여도 촉의 장로들은 쓸 모 없는 짓이라고 한 일이 있었다. (이런 漢代의 고사에 비하면) 원나라가 천명을 받아 백년을 지나 만국이 모두 영광을 입어 (탐라와 같은) 머나먼 絕海孤島라고 해도 제외됨이 없다. 그러므로 李至剛이 대신(帖木兒不花)과 함께 만리 바다를 건너 그 백성을 진무하는데 화살 하나 쏘아 국가에 폐가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역대 어느 왕 조보다 번성함을 본다. 그러므로 (탐라) 기록이 빠진 것을 보충하여 역사에 기록한다면 중국의 사인들이 직접 견문하지 않더라도 해외의 경계를 다 보는 것, 압록을 지나 동해의 끝을 보는 것 같으리라.⁵⁴⁾

<耽羅志略>의 저자 李至剛은 1365년에서 1년간 탐라에 머물렀던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찬술했다고 하는데,⁵⁵⁾ 여기에는 당시 원제국의 직할령으로 약 백년간 운영되어 왔던 탐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을

53) 岡田英弘, 앞의 글.

54) 『清江貝先生文集』(四部叢刊本) 권7. 耽羅志略後序. 耽羅距中國萬里而不載於史, 蓋以荒遠略之也. 至正二十五年樞密院掾曹永嘉李至剛, 從副使帖木兒不花公往守其地, 明年奉詔還京師, 至剛以疾不得俱, 廼留松江, 因記所歷山川旣勢民風土產, 編而成集釐爲三卷, 題曰耽羅志略將錄梓, 鐵崖楊公旣爲叙其端矣, 復求余說余伏而讀之, 因撫卷歎曰, 炎漢之興張騫以郎應募, 出隴西留匈奴中十年, 後亡至大宛, 爲發導驛抵康居傳月氏, 從月氏至大夏, 竟不得其要領, 歲餘歸漢, 爲天子言之, 未能有如耽羅之爲詳也, 司馬相如之通西南夷至用兵而克之, 邛笮冉駹斯榆之君雖南內屬而長老且言其不爲用者, 由是觀之國朝受命百年四方, 萬國咸在天光日華之下, 雖遐陬僻壤窮山絕島, 亦不得而外焉, 故至剛得與大臣涉海萬里而鎮撫其民, 未始頓一兵遣一鏃爲國家病, 則視歷代之盛寔有過之者, 而是編尤足補紀錄之缺, 使列之輿地, 中國之士不待身經目識, 而已悉海外之境, 若過鴨綠窺博桑也, 於是乎書. 貝瓊

55) 岡田英弘, 앞의 글.

것이다. 이 <後序>를 통해 전해지지 않는 <耽羅志略> 속에 탐라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漢代의 장건의 서역원정과 사마상여의 西南夷 경영에 못지않은 위업을 달성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런데 李至剛과 테무르부카(帖木兒不花)가 장건과 사마상여처럼 원정을 한 것은 아닐 터이지만, 1365년 탐라는 중화제국의 역대 어느 왕조보다 번성한 천명의 은택을 잘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장은 되었겠지만 貝瓊이 처음 접하는 이역 탐라의 견문기 <耽羅志略>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탐라지략후서>의 저자 貝瓊은 元末의 名儒로 『元史』의 찬수에도 참여한 인물이다⁵⁶⁾ 『元史』 耽羅列傳의 찬수가 그의 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까지 탐라에 대한 기록은 알려진 것이 없고 貝瓊이 이를 처음 접해 본 인물이고 또 동향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 <탐라열전>의 자료는 李至剛이 쓴 <耽羅志略>을 근거로 했을 것이 틀림없다. 1365년 李至剛이 탐라를 방문했을 때 비록 원말기라고는 하나, 탐라의 목호들은 세력이 온존했고 (따라서 순제도 여기에 피난처를 구했을 것이겠지만) <耽羅志略>은 원의 사신으로서 원 직할령에 대한 탐라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그가 목호와 원제국의 관리로부터 탐라의 역사에 대해 들은 것을 기반으로 했을 것이다. 앞서 목호의 난 경과에서 보았듯이 목호는 탐라에서 고려국을 상대할 정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탐라열전> 與國의 근거는 1365년 李至剛이 경험하고 탐문한 원말의 제주도 당시의 성세, 동아시아 변방의 절해고도가 아니라 천명의 지배를 남김없이 받는 중화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결론지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李至剛이 경험한 몽골지배 시기 제주도의 강성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즉 세계제국 몽골의 힘일 것이다. 몽골제국시기에 제주도는 몽골의 직할령이 되면서 몽골제국의 중심부와 직결되었다. 몽고의 말과 목호들이 제주도에 처음 들어온 것은 1276년의 일로 이미 100년이 지났고 제주도 목장은 몽고

56) 『明史』 권137에 전기가 있고 홍무 11년(1378)에 致仕하고 즐했다고 한다.

의 14개 국립목장 중 하나로 제국을 지지하는 중요한 거점의 하나였다.⁵⁷⁾ 아울러 몽고는 처음에 일본원정의 전초기지로 군사적 요충으로 출발했던 탐라에 水驛을 설치함으로써 탐라에서 요동까지 제주도와 제국을 연결하는 통로를 건설하여 경제적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⁵⁸⁾ 제주도에 水驛이 설치됨으로써 제주도는 몽고제국과 강남의 운하와 연결되면서 동아시아 해역에는 거대한 해상교통망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공민왕의 전대인 충선왕 때는 이러한 교통망을 활용해서 대외교역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도 주목되는데 원말의 전란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다.⁵⁹⁾ 어쨌든 몽고제국이 번성할 때 제주도로도 원제국의 직할령으로서 상당한 번영을 공유할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李至剛이 목격한 제주도의 번성은 몽골제국의 번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몽골제국의 직할령으로서 탐라는 제국의 예속국인 고려와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는, 혹은 오히려 더 지위가 나은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제주도의 특별한 지위에서 오는 번성은 원제국의 붕괴와 함께 종언을 고할 것이다. 그리고 명태조가 몽골제국만큼 달리 제주도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한족 출신이고 또 그의 해금정책 등에서 드러나는 대로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로 돌아섰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홍무제는 1388년 12월, 순제가 오지 못했던 제주도에 그의 후예들을 사로잡아 제주도에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순제의 계획을 대신 실현시켜 주었다.⁶⁰⁾ 이보다 앞서 원의

57) 『元史』 권100, 兵志, 48, 馬政. 其牧地東越耽羅, 北踰火里禿麻, 西至甘肅, 南暨雲南等凡一十四處, 自上都大都以至玉你伯牙, 折連怯呆兒周廻萬里, 無非牧地.

58) 이강한, 「1293~1303년 고려 서해안 '元 水驛'의 치폐와 그 의미」, 『한국중세사 연구』 33, 2012; 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2017; 森平雅彦, 『モンゴル覇権下の高麗—帝国秩序と王国の対応』, 名古屋大学出版会, 2013 참조.

59) 이강한,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2013.

60) 『고려사』 권137, 창왕열전, 창왕 즉위년(1388), 12월. 황제가 전 元에서 院使였던 禧山, 大卿 金麗普化 등을 보내 와서 말과 환관(闍人)을 요구하였다. 희산 등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으로 예를 마치자, 뜰에 내려가 머리를 조아리며 4拜를 하고, 창왕이 서서 이를 받았다. 희산 등이 또한, 聖旨를 전하여 이르기를, “북방을 정벌할 때 귀순한 達達(몽골)의 親王 등 80여 호를 모두 耽羅로 보내

왕손들을 자신이 수만의 병사로 호위하고 곡식까지 내어 돕겠다고 말했지만,⁶¹⁾ 그 모든 부담은 고려측에 떠넘기고 말았을 뿐이다. 원의 천명을 확신한 원의 유신에 의해 편찬된 빛나는 천명을 향유한 탐라에 대해, 홍무제는 공민왕이 순제와 맺은 약조대로 탐라의 말에만 집착할 뿐, 탐라 즉 제주도라는 섬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홍무제에게는 천명의 계승을 선포하면서 원이 전대미문으로 확대시켜 놓은 강역에 대해서도 이를 계승하고 ‘대중국’으로 지속하려고 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역시 宋朝와 같은 한족 중심의 ‘소중국’으로 돌아가려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홍무제가 고려와 일본과 안남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대해 무력침공의 배제를 선언한 것이라든가, 몽고족과 달리 이전의 송조처럼 이미 한족이 거주하고 있거나 이를 유지할만한 한족 인구가 없는 변경지역에 대해서는 그 정복에 무관심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⁶²⁾ 이는 앞서 말한 탐라에 대한 홍무제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실제 1372년 공민왕이 사신을 보내 목호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명에게 군대의 파견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무제는 이를 거절하였던 것이다.⁶³⁾ 여기에 한족중심의 농경왕조인 명과 유라시아 유목

거주시키려고 한다. 너희들이 고려에 가거든 잘 설득하여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깨끗하고 편리하여 갈 만한 곳에 살 곳을 만들고 함께 돌아와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典理判書 李希椿을 濟州로 보내 새 집과 낡은 집 가운데 거처할만한 집 85개 所를 수리하게 하였다.

- 61) 『고려사』 권137, 창왕열전, 즉위년 6월. “이제 원의 자손들이 귀부한 자가 매우 많으나, 짐이 원의 후손을 끊이지 않게 하려고 여러 왕들을 섬에 두고 병사 수만으로 호위하고 兩浙에서 곡식을 내어 돕고자 한다. 원의 후손을 보존 하려고 원의 자손으로 하여금 섬에서 편안히 다시 지내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 62) 이성규, 「중화제국의 팽창과 축소」, 2005, 98-99쪽. 皇明祖訓은 우리 변경을 침범하지 않고 중국에 患이 되지 않는 한 정벌하지 말 것을 엄명하고 있다. 대중국과 소중국에 대한 원·명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John Dardess, 2003, Did the Mongols Matter? Territory, Power, and the Intelligentsia in China from the Northern Song to the Early Ming, Paul Jakob Smith and Richard von Glahn, eds. *The Song-Yuan-Ming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Harvard UP. 120-121쪽 참조.
- 63) 명태조가 탐라가 고려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주도에 자신의 정적을 유배 보내는 것을, 서양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표명하듯이(Henry Serruys, “Mongols on Tan-lo Island,”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

제국이었던 원의 차이가 보인다. 그 대신 제주도는 소중화를 자처하는 명의 조공국인 조선의 속국이 되었다. 조선에서도 중화 속의 夷狄처럼 內境으로서 제주도가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⁶⁴⁾ 그렇다면 탐라 제주도의 지위는 몽골시대에 비해서 오히려 격하된 것은 아닐까?

IV. 與國에서 屬國으로

원제국의 후예들의 유배지로 배정된 제주도는 몽고제국의 직할령으로서 몽고제국과 함께 번영을 누리던 고려국과 대등한 與國의 입장에서 갑자기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한 흔적은 제주도의 朝天館에서 발견된다. 현재 제주도의 조천읍은 바로 이 朝天館에서 유래하는 것일 텐데 <동국여지승람>에 이 朝天館에서 조공물품[貢物]이 운차로 바다를 건너 나간다는 기록이 보인다.⁶⁵⁾ 조천관은 고려시대에 탐라의 사절을 맞이했던 朝宗館을 연상케 하는데,⁶⁶⁾ 祖宗館보다 훨씬 강한 예속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고려시대에 비교적 독립적인 섬으로서 중국 정사인 <원사>에는 고려와 대등한 여국으로 탐라국으로 기술된 제주도가 朝天館을 통해 한반도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이

ad(1368~1398),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1980, 295쪽), 명태조의 행동에는 모순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조공질서의 한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탐라의 지배문제를 초월하는 조공질서의 초법적이며 폭압적인 질서에 속하는 문제일 것이다. 여기에 동아시아 문명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64) 內境 개념에 대해서는 이성규, 앞의 글, 2005 참조.

6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관방, 103-106쪽. 朝天館防護所 및 朝天館: 세 고을을 경유하여 육지로 나가는 자는 모두 여기서 바람을 기다리고 전라도를 경유하여 세 고을에 들어오는 자도 모두 이곳과 애월포에 배를 대인다.

66) 『고려사』 권7, 문종 세가 9년(1055) 2월20일 戊申. 寒食, 饗味商葉德龍等八十七人於娛賓館, 黃拯等一百五人於迎賓館, 黃助等四十八人於清河館, 耽羅國首領高漢等一百五十八人於朝宗館. 朝宗館의 朝宗은 鎭浦의 옛 이름인 朝宗浦에도 쓰이는데 이것은 제후가 천자를 알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박영철, 앞의 책, 2017, 154-159쪽 참조.

다. 조천이란 본래 고려가 천자의 나라인 중국에 조공할 때 쓰는 말인데 제주도에서 고려에 입국할 때 조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몽골직할령 때 탐라에서 압록까지 수역으로 연결되어 몽고 중앙부와 직결되던 제주의 지위를 생각하면 현저한 격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천관은 제주도가 한반도 안의 또 하나의 작은 위성적 조공질서가 작동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는 해양이라는 자연적 장벽에 더하여 중앙으로부터 더 고립된 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가능성이 확대된다. 이는 몽골시대와 비해 제주도가 중앙에서 소외된 역사의 반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반도는 제주를 조공질서체제에 편입하는데 성공했지만, 제주의 해양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열려 있던 원대의 해양적 자유가 제압당한 반해양적이고 폐쇄적인 좌절의 역사였다. 명태조가 원의 후손들을 유배하기에 적당한 머나먼 동이의 해도로 생각했듯이 조천관이 상징하는 조공질서체제와 맞물려, 제주도는 지방 중의 지방, 먼 원양에 떠 있는 이국 같은 섬으로 차별과 불평등의 대표적인 공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는 개항 전까지 불변일 정도로 한반도의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제주도에 표류한 중국인과 외국인을 송환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제주도에서 해로가 아니라 한반도를 거쳐 육로로 우회하여 송환되는 구조에도 드러난다. 제주도의 이러한 소외는 특히 19세기에 표류선에서 발생한 폐철까지도 일일이 제주도에서 육로로 중국의 심양까지 송환시키는 희비극적인 사건에 잘 드러날 것이다.⁶⁷⁾ 필자는 명초 군산도에 초점을 맞추어 해금과 북경천도의 지정학적 영향으로 황해남로가 폐쇄되어 해양과의 소통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지만, 원·명 교체 이후 제주도 역시 동아시아 해양사에서 그 역할이 쇠퇴하게 되었음이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다.

원제국에서 명제국으로 변화하는 사이에 제주도의 역사적 위상에는 주목할 변화가 보인다. 제주도는 원제국의 지배기간 樂土로 변모하는

67) 박영철, 「화이의 교류와 표류-1809년 “濟州島漂船廢鐵 송환사건”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38, 2018 참고.

전에 없던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원사의 기술에서 탐라를 고려의 속국이 아니라 고려의 여국으로 등장하게 하였다. 이렇게 된 근처에는 제주도가 갖고 있던 해양적 속성으로서 그 해양력을 원제국이 충분히 가동하게 한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삼별초 난의 비극이 지나간 후 '팍스 몽골리카'의 백년 간 제주도는 고려의 착취도 없이 원제국의 국영목장의 우산 아래 평화롭게 지내왔던 것이 아니었을까? 원제국 지배의 약 백년 동안 쌀농사의 환경에서는 척박한 제주의 토양은 목축에는 오히려 천혜의 자원이었고, 여기에 몽고족의 선진적 목축기법을 도입하여 제국의 수요에 적합한 목축업의 섬으로 새로 나게 되었다. 몽고제국 지배기와 그 생애가 중첩된 고려말의 문호 益齋(1287~1367)는 耽羅曲이라는 흥미로운 시를 남기고 있다.⁶⁸⁾ 이 시는 저자가 스스로 밝히듯이, 땅 좁고 가난한 제주도에 몽고의 지배와 함께 우마로 뒤덮이면서 관리들의 수탈과 그로 인한 민변의 빈번한 발생을 비판한 사회풍자시이지만,⁶⁹⁾ 한편 우마로 뒤덮인 제주도가 북풍에 청자와 백미를 가득 싣고 올 배를 기다린다는 耽羅曲의 시처럼 제주도가 외부세계와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던 열린 해양적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익재가 말하는 탐라의 변모된 모습은 원제국의 번성한 경제교류가 제주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益齋가 탐라를 배경으로 이러한 시를 남기게 된 사실 자체가 탐라의 자원과 대외교류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⁷⁰⁾ 황해의 남단에 놓여 있는 제주도가 고려

68) 『益齋亂藁』 권4, 詩, 한국고전번역원 역. 거꾸러진 보리 이삭 그대로 두고, 가지 생긴 삼도 내버려 두었네, 청자와 백미를 가득 싣고서, 북풍에 오는 배만 기다리고 있구나(從教壘麥倒翻披, 亦任丘麻生兩歧, 滿載青瓷兼白米, 北風船子望來時).

69) 탐라(耽羅)는 지역이 좁고 백성들은 가난하였다. 과거에는 전라도에서 瓷器와 稻米를 팔러 오는 장사꾼이 때때로 왔으나 숫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官家와 私家의 소와 말만 들에 가득하고 開墾은 없는 데다가 오가는 冠蓋가 북(梭)같이 드나들어서 전승과 영접에 시달리게 되었으니 그 백성의 불행이었다. 그래서 여러 번 變이 생긴 것이다(耽羅地狹民貧, 往時全羅之賈販, 瓷器稻米者時至而稀矣, 今則官私牛馬蔽野, 而靡所耕墾, 往來冠蓋如梭, 而因於將迎, 其民之不幸也, 所以屢生變也), 위의 책, 이제현이 耽羅曲을 쓰게 된 배경.

의 변경이 아니라 원제국의 국영목장으로서 원제국의 중심부의 하나로 변신하게 된 것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적 환경 덕분이고 그 환경에 주목하고 개발한 원제국의 정치적 역량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낙토적 환경이 원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제가 망명처로서 제주도에 피난궁전을 짓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⁷¹⁾

그러나 이러한 낙토의 이미지는 원제국의 몰락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순제가 조성하려고 한 궁전도 순제의 죽음과 함께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제주도는 고려시대에 비해 오히려 낙후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조선시대 제주도의 인구감소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즉 고려시대 제주도의 인구가 원제국 지배 백년 동안 1만에서 3만으로 증가한 반면,⁷²⁾ 조선시대 15세기 중엽부터 17세기말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감소현상의 배경에는 제주도의 척박한 농지환경과 가혹한 공물수탈로 인한 鮑作人이라 불리는 제주도를 떠나는 인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조선왕조가 그 대책으로 출륙금지령(1629년, 인조 7)을 내려 이후 250년간 제주도를 물로 포위된 감옥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은,⁷³⁾ 제주도의 해양성을 철저히 박탈해버린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원제국의 몰락 이후 새로 등장한 명제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폐쇄적 조공질서체제가 있었는데, 그 조공질서 안에서 한반도에 조공을 바쳐야 했던

70) 益齋의 耽羅曲은 전반부에 都近川과 水精寺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익재가 탐라를 견문한 후에 쓴 것이 틀림없는데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 『고려사』 李齊賢列傳(권110)에는 흥미롭게도 “이제현의 손자들은 연달아 奇氏와 혼인하였는데, 이제현은 기씨가 너무 번성한 것을 꺼렸다”라고, 익재와 奇氏 일가의 친연성을 수록한 기사가 보인다.

71) 순제가 제주도에 피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윤은숙, 「元末 토곤 테무르 카안의 耽羅宮殿」, 『탐라문화』 53, 2016은 전통적인 사회적 배경과는 달리 기황후와의 갈등에 따른 정치적 염증 및 원말의 역병의 유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에 기록된 것처럼 사회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말의 혼란과 더불어 제주도가 안정적인 낙토로 인식되었기에 피난궁전을 조성하게 된 것은 확실할 것이다.

72) 김일우, 앞의 책, 2000, 97쪽, 279쪽.

73)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26, 2005.

또 하나의 작은 조공국이 朝天館을 통해 육지 한반도와 연결된 제주도였다. 현재 제주도 朝天邑의 기원이 된 朝天이라는 말은 본래 조선이 명에 대해서 사대의 예를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지만, 조선은 그 말을 자신의 조공국이 된 제주에 대해 부과한 것이다.

V. 결 어

고려시대의 제주도는 해양으로의 길이 열려 있었다. 목호의 난이 전개될 때도 그 소식은 아마 황해와 중국해를 통해서 원제국의 중심부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서두에 소개한 김갑우는 제주도에 명주까지 50필의 말을 싣고 동아시아 해양을 가로질렀고, 순제가 제주도에 궁전을 짓기 위해 사신을 파견한 길도 황해남로의 해로였고, 목수들도 아마 이 해로를 통해 갔을 것이다.⁷⁴⁾ 제주도에 돌아와 <탐라지략>을 남긴 浙江의 李至剛도 황해남로를 통해 왕래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 해

74) 『고려사』 권41, 공민왕세가, 공민왕 18년 9월. 순제의 제주도 궁전을 짓기 위해 온 원에서 온 도목수 元世는 원의 멸망과 함께 궁전 짓기가 중단되자, 공민왕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제주에서 상경하고 있다. 공민왕 18년 9월의 기사는 공민왕의 토목공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 元世의 충고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 달에 崇仁門 밖에서 주춧돌을 잘라 馬岩까지 운반하였는데, 그 크기가 집채만 하였고 끄는 소리와 사람들이 내지르는 소리가 소가 우는 것 같았다. 또 州縣에서 장정들을 징발하여 재목들을 水路로 실어왔는데, 놀리거나 물에 빠져 죽은 자를 셀 수가 없었다. 온 나라가 괴롭고 피곤해졌으나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 왕이 元의 도목수[梓人] 元世를 濟州에서 불러와 景殿을 세우게 하니 원세 등 11명이 가족을 이끌고 왔는데, 원세가 宰輔들에게 말하기를, “원의 황제가 토목공사 일으키기를 좋아하였다가 민심을 잃어버렸고, 천하[四海]를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 이에 우리 무리들에게 耽羅에다가 궁궐을 짓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제주도> 피난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원이 망해버렸으니 우리 무리는 衣食을 잃었는데, 지금 불려와 다시 의식을 찾게 되었으니 진실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원은 천하에서 가장 컸음에도 민을 피로하게 하였다가 망하였는데, 高麗가 비록 크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민심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여러 재상들께서는 왕에게 아뢰어 주십시오.”라고 하였으나, 재보들이 감히 왕에게 아뢰지 못하였다.”

로는 원말 강남의 군웅들이 고려와의 통교를 위해 사절을 파견했던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제주도는 원제국 시기에 바다를 향해 열려 있었고 제주도는 동아시아해양에서 원제국의 지배기간 낙토로 변모하게 하는 전에 없던 양상을 보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원사의 기술에서 탐라를 고려의 속국이 아니라 고려의 여국으로서 고려와 대등하게 위치짓게 하였다. 이렇게 된 근처에는 제주도가 갖고 있던 해양적 속성으로서 그 해양력을 원제국이 충분히 가동하게 한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삼별초 난의 비극이 지나간 후 '팍스 몽골리카'의 백년간 제주도는 원제국의 국영목장의 설치 이래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제국 지배의 약 백년동안 쌀농사의 환경에서는 척박한 제주의 토양은 목축에는 오히려 천혜의 자원으로 주목되었고, 여기에 몽고족의 선진적 목축기법을 도입하여 제국의 수요에 적합한 목축업의 섬으로 새로 나게 되었다. 황해의 남단에 놓여 있는 제주도가 고려의 변경이 아니라 원제국의 국영목장으로서 원제국의 중심부의 하나로 변신하게 된 것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적 환경 덕분이고 그 환경에 주목하고 개발한 원제국의 정치적 역량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낙토적 환경이 원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제가 피난처로서 피난궁전을 짓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⁷⁵⁾

그러나 이러한 낙토의 이미지는 원제국의 몰락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순제가 조성하려고 한 궁전도 순제의 죽음과 함께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제주도는 고려시대에 비해 낙후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것은 조선후기 수백 년에 걸친 제주도의 인구 감소와 출륙금지령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조선시대 제주도의 역사적 낙후는 원제국의 몰락과 명제국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는

75) 순제가 제주도에 피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윤은숙은 앞의 글에서 전통적인 사회적 배경과는 달리 기황후와의 갈등에 따른 정치적 연중 및 원말의 역병의 유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에 기록된 것처럼 사회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말의 혼란과 더불어 제주도가 안정적인 낙토로 인식되었기에 피난궁전을 조성하게 된 것은 확실할 것이다.

데, 그 질서란 명을 종주국으로 하는 폐쇄적 조공질서이다. 원대에도 고려와 원이 조공질서로 묶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려와 원의 관계는 부마국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고, 제주는 이미 말했듯이 몽고의 국영목장이 설치된 고려와 대등한 여국의 지위에 있는 탐라국이였다.

몽고제국의 쿠빌라이 칸이 애초 황해 남단의 제주도를 주목한 것은 이 섬이 중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쿠빌라이의 결단과 경략으로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상에서 전에 없던 중요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지형적 요지가 되었다. 원제국의 지배 100년간 제주도는 낙토로서 번영을 누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원명교체기에 제주도는 낙토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 결과는 牧胡의 난이라는 비극으로 나타났다. 원제국 후에 새로이 정착된 명제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원제국과는 달리 폐쇄적인 조공질서로서 제주도와 원제국을 연결하던 황해남로는 소멸되어 황해는 해금의 바다가 되었고, 원제국의 보호 하에 번영을 구가하던 제주도는 원제국 및 황해남로의 소멸과 함께 원제국 이전의 고려시대보다 더욱 강력하게 한반도에 복속하게 되었다. 제주도와 조선을 연결하던 통로가 朝天館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짐작되듯이 제주도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자유로운 바다위의 섬에서 오직 대륙과 연결된 한반도의 위성적 조공국가로만 기능하게 된 것이다. 朝天은 본래 조공질서를 상징하는 말로 조선이 명에 대해서 사대의 예를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지만, 조선은 그 말을 자신의 조공국이 된 제주에 대해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폐쇄적인 해양에서 '동아지중해'를 운운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동아지중해' 개념이 연원된 유럽지중해는 그 지형적 인문역사적 환경이 이른바 동아지중해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⁷⁶⁾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2천 년 간 화이관을 토대로 유지되어 온 조공질서적 국제관계는 유럽지중해의 자유로운 국제질서와는 너무나 차이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

76) 유럽지중해와 비교한 '동아지중해'의 간단한 비판적 검토에 대해서 박영철, 「황해남로와 '동아지중해」, 『(2017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자료집 2) 동북아 해양문화교류의 허브, 새만금』, 2017, 198-203쪽 참조.

시대에 사방으로 열린 동아시아 해역의 중심을 차지하는 교통의 요충으로서 쿠빌라이가 주목했던 제주도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중국의 조공국 조선에 철저히 예속된 또 하나의 작은 조공국으로 변모된 과거를 회고해 볼 때, 제주도가 차지하는 해양사적 위상은 동아시아 역사상에서는 특이한 역사적 경험으로 돌아켜볼 가치가 있다.

K C I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고려사』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益齋亂藁』
『續文獻通考』 『隋書』 『元史』 『明史』 『續日本記』 『元豐類稿』
『清江貝先生文集』

2. 단행본

구범진, 『이문역주』, 세창출판사, 2012.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박영철, 『군산과 동아시아-황해남로 흥망사-』, 민속원, 2017.
이강한,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2013
이상규·오창명 역주, 『南嶺博物』, 푸른역사, 2009.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森平雅彦, 『モンゴル覇権下の高麗-帝国秩序と王国の対応』, 名古屋大学
出版会, 2013.

3. 참고논문

岡田英弘, 「元の惠宗と濟州島」,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藤原書店,
2010[1958].
高橋公明,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과 고려」, 『도서문화』 20, 2002.
고창석, 「元·명교체기의 제주도-목호난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4,
1985.
고창석, 「獻馬使臣 金甲雨의 斷罪事件」, 『제주도사연구』 3, 1994.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호적중
초에 보이는 본관명 '大元' 가문의 사례분석-」, 『지방사와 지방
문화』 제13권 제2호, 2010.
李龍範, 「奇皇后의 冊立과 원대의 資政院」, 『歷史學報』 17·18, 1962.
박영철, 「화이의 교류와 표류-1809년 "濟州島漂船廢鐵 송환사건"을 중
심으로-」, 『역사학보』 238, 2018.

- 배숙희, 「宋代 동아시아 海上 교류민의 발생과 송환」, 『중국사연구』 65, 2010.
- 배숙희, 「元代 慶元지역과 南方航路-탐라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 『중국학보』 65, 2012.
- 윤은숙, 「元末 토근 테무르 카안의 耽羅宮殿」, 『탐라문화』 53, 2016.
- 이강한, 「1293~1303년 고려 서해안 ‘元 水驛’의 치폐와 그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33, 2012.
- _____,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2017.
- 이성규, 「중화제국의 팽창과 축소」, 『역사학보』 186, 2005.
- 임상훈, 「明初 洪武帝의 말 강요와 麗明關係」, 『중국사연구』 99, 2015.
- 정동훈, 「몽골제국의 붕괴와 고려-명의 유산 상속분쟁」, 『역사비평』 121, 2017.
- 정동훈,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제주 문제」,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
- John Dardess, Did the Mongols Matter? Territory, Power, and the Intelligentsia in China from the Northern Song to the Early Ming, Paul Jakov Smith and Richard von Glahn, eds. *The Song-Yuan-Ming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Harvard UP, 2003.
- Henry Serruys, “Mongols on Tan-lo Island,”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1368~1398)*,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1980.

ABSTRACT

Yellow Sea South Road and 'East Asian Mediteranean'

Park, Yeong-cheol*

This essay is to illuminate the historical character of Jeju Island in the East Asian maritime environment, especially focusing the historical character of "Paradise Island of Jeju" probably which has been made by the hundred years of amalgamation of the Mongolian resources of human power and pastoral culture with the native human and natural environment of the Jeju island. But through the long rebellions of Barbarian Shepherds(1356~1374) happened in the era of Yuan-Ming interregnum, all this image or the character made changed. The suppression of the rebellion by the Koryo government is sometimes evaluated as an inheritance dispute of Mongol legacy, but this does not seem to represent all the truth of the event. Actually nobody can disregard the Mongol legacy. The man who first penetrated into the maritime importance of Jeju Island in East Asia and gave it an economical ground was Khubilai. But we should not disregard the historical legacy of Koryo dynasty either whose relation with Jeju was much longer than Mongol. And the last and not least is the story of Jeju people themselves which is usually omitted in official history.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historical character of Jeju Island in the Yuan-Ming interregnum era in the point of maritime history. The historical change is, to sum up, the closure of the Yellow Sea and the reinforce of tributary order. Through this

* Kun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conclusion I would like to remark that in this East Asian politico-maritime environment one can hardly sustain the concept of 'East Asia Mediterranean.'

Key-words: rebellion of the Barbarian Shepherds, national ranch, waterway posthouse, Yellow Sea South Road, tributary orde

논문투고일: 2019. 01. 01.

심사완료일: 2019. 01. 25.

게재확정일: 2019. 02. 01.

K C I